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동국대학교일산병원, 3년 연속 대장암 적정성 평가 1등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대장암 적정성 평가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종별 평균 종합점수인 92.41점보다 훨씬 높은 99.23으로 거의 모든 항목에서 100점 만점을 기록했고, 외과, 종양내과, 소화기내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여러 과에서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협진이 대장암 치료에 큰 효과가 있음을 나타냈다. 이번에 실시한 대장암 적정성 평가는 지난 2014년 대장암 수술을 한 267개 의료기관에서 원발성 대장암으로 수술받은 만 18세 이상 환자 1만 7천 6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전문인력 구성여부, 수술 전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 시행률, 생존과 관련 있는 최소한의 임파절 절제 및 검사율, 수술 후 8주 이내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수술 후 사망률(병원 내 30일내) 등 총 20개 분야에서 평가가 이루어졌다

02 인공지능을 활용한 뇌혈관질환 영상진단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 이전 및 산학협력 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태석기)은 (주)제이엘케이인스펙션(대표 김원태)과 지난 3월 28일 뇌질환 영상진단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계약을 맺고, 향후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개발에 참여하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김동익 교수팀은 국가기술 표준원 및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지원으로 뇌경색 뇌 MR 영상 참조표준을 개발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인의 뇌혈관 표준 뇌 도판을 완성하여 2015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이번 계약을 통해 기존의 의학 관련 기술 자료에 인공지능을 탑재 환자 맞춤형 진료 시스템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동기술개발 협력으로 뇌관련 의료 플랫폼 서비스(platform service)분야에 국내 기술력 개발로 뇌관련 분야 글로벌 의료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 선두 주자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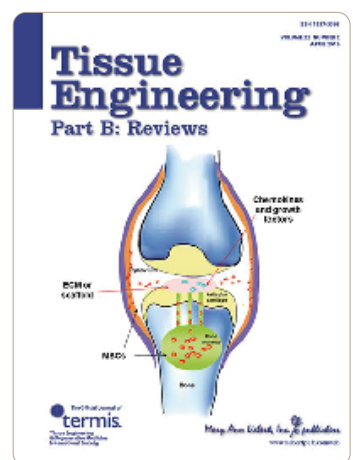


03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 논문 'Tissue Engineering'지 표지로 채택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의 논문이 미국에서 간행되는 조직공학의 우수 저널 'Tissue Engineering'(IF:4.2) 2016년 4월호에 표지로 채택됐다.

표지에 실린 그림은 세포 이식 없이 골수에 존재하는 내재 줄기 세포를 연골골손 부위로 이동시켜 결손을 치유하는 개념의 모식도로써 논문의 우수성이 입증되어 이번호에 실리게 되었다. 임균일 교수는 현재 세계조직공학 재생의학회의 평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축적된 재생의학기술을 바탕으로 손상된 인체조직 및 장기복구연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Tissue Engineering'은 1995년 조직공학 태동기에 미국에서 창간된 저널로 현재 세계조직공학/재생의학회(TERMIS)의 공식학술지로 세계조직공학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04 2016년 간호 관리자 워크숍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간호부는 4월 1일부터 2일까지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서 '2016년 간호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발상을 전환하라! 현재로부터 미래를 보다'라는 주제로 간호부의 주요 추진 사업 및 발전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간호업무개선 △간호교육 △간호조직문화 △감성 복리후생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누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공성화 간호부장은 "2016년 간호 관리자 워크숍에서의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행복한 간호현장을 만들어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간호부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쓰자"라고 전했다.



05 일산동구보건소와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 사업' 협약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5일 일산동구보건소와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이용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된 중산동, 풍산동, 식사동 3개 동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방 침시술, 건강 상담, 한방진료, 건강교육 등을 제공한다. 또한 동구보건소에서는 진료 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제2의 청춘을 맞이하시길 바라는 취지로 '청춘차'라는 한방차를 자체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며, 일산동구보건소와는 매달 한 번씩 나눔 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인공 49호

특수간호팀 수술실

허은경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 있는 단어가 '처음'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수술실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많은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좋은 기억의 스승은 사회생활 첫 시작의 스승인 허은경 선생님입니다. 수술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히 가르쳐 주셨으며, 마냥 학생의 모습을 못 벗던 저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믿고 응원해주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마음속 깊이 간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되는 일은 남자인 저도 장시간 서서 수술에 참여하다 보면 다리도 아프고 많이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깨끗하게 수술실을 지키며 출산을 하는 날까지 근무하는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신규 직원이 올 때마다 새롭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반복적인 일이어서 힘이 들지만 전혀 힘든 내색 없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부서가 바뀌어 자주 연락은 못 하지만 가끔 연락을 할 때 매번 응원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단순히 업무만의 교육이 아닌 인생을 가르쳐 주는 허은경 선생님은 비록 작은 체구지만 저에게는 가장 크게 느껴지는 존경하는 분입니다.

보험심사팀 이재욱